

다산포럼

허욱



'TV로 인터넷이 흐른다' 인터넷 망을 통해 TV방송을 전달하는 IPTV에 대한 시범사업자의 설명자료 제목이다. 제법 시적이며, IPTV의 시범서비스가 지난 22일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다. 위성 및 지상파 DMB와 Wibro에 이어 IPTV까지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새로운 미디어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이들 새로운 미디어의 특징은 융합서비스를 핵심으로 한다. 즉 신문과 인터넷이 융합한 인터넷신문, 방송과 인터넷이 융합한 인터넷방송에 이어 휴대폰과 방송이 융합한 움직임 DMB 및 지상파 DMB, 휴대폰과 고속인터넷이 결합한 Wibro, 그리고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IPTV 등은 통신과 미디어, 정보기기의 융합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서비스들이다.

이렇게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지위와 규제 체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말 방송통신 융합추진위원회(융주위)를 출범시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통합적인 규제기구의 구성 및 IPTV 관련 법의 연내 입법, 디지

털TV 활성화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융주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도 구성했다. 융주위는 석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3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최근 정보통신

IPTV와 딴 생각

부와 방송위원회의 방송, 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통합위원회(안)를 기구개편 다수의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통합기구의 형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같이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구조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5인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는 등 위원간 서열을 두어 산업진흥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책임제적 성격을 가미하였다.

또한 각 부처의 콘텐츠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문제는 문화부로의 통합을 놓지 않은 채 추후 별도로 논의하며, 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우정기능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주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미디어산업계의 가장 큰 혼란인 IPTV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화는 내년으로 미뤘다.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의견이 맞서고 있어 통합기구 개편안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커 모양이다.

국무조정실은 융주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관련 통합기구설치 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힘이 빠진 정부여당의 국정장악 능력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특히, 약 1년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이 때 다시

도입을 통해 새로운 첨창사업의 불파구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필자가 IPTV의 도입을 바라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콘텐츠 활성화이다. 요즘은 개인이 만든 동영상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로 순식간에 퍼지는 세상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최고 발명'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UCC(User Created Content)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선정했다.

몇 차례 클릭으로 스스로 활용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전세계 인터넷문화를 바꾼 것이 유튜브다. 타임은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공감을 주고 톱다운 방식의 미디어문화의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UCC, 즉 인터넷을 통한 사용자제작 콘텐츠가 주목 받고 있는 최근의 추세는 콘텐츠 제작 유통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미디어의 일방향성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라 여겨진다. 현재 국내 인터넷에서 UCC나, TV포털, 웹포털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IPTV를 지향하고 있다. IPTV 도입을 계기로 콘텐츠 활성화를 촉발시켜 우리 사회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LIBRA컨설팅 대표
·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업체나 미디어업체는 IPTV 조기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남수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주최한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심포지엄'의 내용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그들은 '일제시대를 일본에 의한 근대화 과정으로, 4·19혁명은 단순한 학생운동으로, 5·16은 정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가 아닌 사회변혁을 위한 혁명으로, 유신은 조국 근대화를 이루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송고한 유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5·18 민주항쟁은 '중앙권력으로 부터 소외된 광주지역의 분노가 누적되어 발생하였고, 한국사회에 반미급진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중국이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는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는 바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고, 북한을 중국영토로 만들려는 장기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한국 국민들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고 대응했던 것이다. '교과서포럼'의 역사 인식 역시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의 논의와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노력의 성과로 정립되었던 평가를 뒤집으려 하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처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과서포럼' 역사왜곡이 가져올 위험들

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을 승계한 정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뉴라이트의 등장으로 시민운동이 분화되면서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된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담론의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제식민지, 군부쿠데타, 유신독재를 정당화시키고, 국민을 학살한 군부에게 목숨을 걸고 저항한 시민들의 희생을 단지 지역소외 때문에 생긴 불만의 결과라고 평가 절하하는 것은 좀 정도가 심하다고 본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논리는 이념과 사상을 다른 일반적 정론지가 아닌 교육용 교과서에 달라붙어진다는 점이다. 만약 이를 교과서가 미래의 새싹들에게 교육되고, 청소년들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후세의 역사인식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역사적 과정들이 정당화되고 그 역사는 후세에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개혁연대 집행위원장〉

종부세 거부자 정부가 강력 처벌 해야

정부가 부동산값 폭등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가 종합부동산세다. 이 제도가 12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최근 납부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충격적인 때문이다.

돈 많은 부유층과 보수층들을 중심으로 납부거부를 위한 전국적인 조세저항운동을 선언했다고 한다. 이같은 악의적인 납세 거부 운동이 자칫 전국으로 번질까 두려워지만 그런 일은 없을것으로 믿는다.

▲정현경·목포시 연산동

하지만 이같은 납세거부 망동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범법 행위이다.

한사람이 수십채, 수백채씩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평생거리며 사는 나리가 얼마나 될까. 정부는 종부세 거부자들에게 일별백 계의 자세로 엄단하고 어떤 단체든지 선동자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

창작 동물세상

동물계의 미인 '레서팬더'



혹시 이 동물을 본 독자가 있을까.
너구리과의 일종이지만 몸 전체는 밝은 주황색 털로 덮였고 눈 주변과 코는 팬더처럼 희며 대나무 잎을 좋아하는 동물.

세계적인 희귀종인 레서팬더(Lesser Panda). 히말라야 남서쪽 산맥과 중국 남부 등 해발 2천200m~4천800m의 산림지대에서 서식하는데, 몸길이 약 60cm·몸무게 3~6kg에 수명이 8~10년에 불과하고 번식률이 낮아 멸종 위기 동물로 보호받고 있다.

하나 더. 혹시 이 동물을 보고 싶다는 자녀 때문에 우치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국내에서는 서울대공원에서 레서팬더를 볼 수 있다. 이 사진은 서울대공원에서 찍은 것이다.

너구리과인데 주로 대나무·과일을 먹는 초식성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하지만 가끔 작은 포유동물이나 양서류를 잡아먹기도 해 완전한 초식성 동물은 아니다.

대부분의 너구리과 동물들이 조금은 거리감을 주는 데 비해 이 너구는 코앞리처럼 그냥 접근해 안아도 될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랬다가 큰 코 디친다.

하나 더. 혹시 이 동물을 보고 싶다는 자녀 때문에 우치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국내에서는 서울대공원에서 레서팬더를 볼 수 있다. 이 사진은 서울대공원에서 찍은 것이다.

◇ 최종욱

광주우체국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학교·음식점·구내식당 등 음식물 잔반 없애기 운동 시급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의례히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늘 음식이 남는다는 것이다.

특히 직원들이 식기가 넘치도록 피곤 뒤 먹지도 않고 남기는 음식이 너무 많다.

한번은 다른 회사에 출장갔다가 그 회사 구내식당에서 들렀는데 배식하는 곳에 하루 37인분의 음식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어요'라고 적힌 경고문을 본적도 있다. 더 큰 회사들은 어떻겠는가.

일반 직장뿐만 아니라 시내 음식점을 가도 마찬가지다.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람수에 비해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시킨다는 점이다. 게다가 식당 주인에게 "사람이 몇 명인데 얼마 정도를 시키면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이 경우 역시 주인이 권하는 대로 시켜보면 대부분 양이 넘치고 야 한다. 아내가 한번씩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을 하고 오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의 잔반 이야기이다. 특히 저 학년의 경우 교사가 옆에서 지켜서 잔반 없애기 위해 따길도록 아이들에게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학교, 업체, 식당, 그리고 가정에 이르기까지 잔반이 많이 남아돌아 쓰레기로 버려지면 엄청난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을 부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학교, 가정에서 잔반 없애기 운동이 될 때까지 범시민 운동이라도 벌였으면 한다.

▲이학섭·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시설

'상생경영' 외면하는 기아차 광주공장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업체들이 기아차의 잇따른 파업과 납품단가 인하라는 이중고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지난 여름 한 달 가까운 광주공장의 파업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데다 납품단가마저 5~10% 깎아 경영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성 악화 부담을 증소화업체에 고스란히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지난 4월 대대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계속된다. 알리고 있다. 기아차의 상생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대내·선전용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환경학자이나 원자력이 상생 등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대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게 기업 경영의 정도다. 자신들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하야 할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 대책 서둘러라

신규 취업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재취업 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평균 비경제활동인구가 2000년 이후 최대인 1천487만3천명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취업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비경제활동인구의 46.5%는 '육아·가사'에 종사하고 있고 아무런 대체 없이 '쉬고 있는' 사람은 9.3%로 2003년 6.3%, 2004년 7.2%, 2005년 8.5%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취업준비생'도 2003년 2.4%, 2004년 2.7%, 2005년 3.1%에 이어 올해 3.4%로 상승했다.

신규 취업뿐 아니라 한 번 직장을 잊으면 다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전체적인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순위 500대 기업을 대상

으로 내년 신규 채용규모를 조사한 결과, 4만9천602명으로 올해 채용 예상 규모보다 5.1% 줄었고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도 13.7%에 달했다. 세계 경기의 부진과 불안한 환율 및 유가, 복지사태 등은 내년 고용시장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은 고급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고용이 활발히 이뤄져야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지금처럼 신규와 재취업 가릴 것 없이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업자가 1천400만명을 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無等鼓

'피겨요정' 김연아(16·군포 수리고)가 지난달 19일 열린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대회에서 세계 정상을 웃었다. 한국 빙상 100년 역사상 최초의 흑자였다.

당시 연기에 맞춘 선율이 '종달새의 비상(The Lark Ascending)'.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때로는 힘차게, 또 부드럽고 우아하게 은발을 누비는 김연아는 한마리 새였다.

김연아가 '피겨와 왕'으로 등극한 것에 대해 언론들은 모두 작전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일반인들은 '피겨에 무슨 작전?' 하며 의아해 했지만 박분선 코치는 체력이

약한 김연아의 단점 보완을 위해 고난도 기술을 연기 초반에 모두 소화하도록 배치했다.

이번 15회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이 유력한 '마린보이' 박태환(17·경기고)의 4일 수영 자유형 200m 첫금도 차밀한 작전의 결과물이었다. 노ミ상 감독은 박태환에게 '초반 100m 뒤까지만 라

3번의 번트실패가 패인었다. 김 감독에게는 전가의 보답였지만 번트를 즐겨쓰다 결판이 났다.

구기종목에서는 더욱 다양한 작전이 구사된다. 작전하나에 승패가 좌우되며 하는데 야구의 김재박 감독은 결승

작전의 '참변'

만 있으면 모두 작전을 거는 스타일 때문에 '그라운드의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 작전의 근간은 번트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게임 대만전에서 서 한국은 4번의 번트 실패로 무릎을 꾸었고 사회인 야구선수들이 주축인 일본전에서도

3번의 번트실패가 패인었다. 김 감독에게는 전가의 보답였지만 번트를 즐겨쓰다 결판이 났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믿음의 야구'로 세계최강 미국과 일본은 격